

# 성장사다리펀드 설문조사 결과요약

(‘15. 8. 12,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)

구 분	설문조사 결과 요약	
기 업	인지도 및 호감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전히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, 정보 취득(운용사 연락처, 투자분야 안내 등)도 용이하지 않은 편</li> <li>■ 다만, 성장사다리펀드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인식</li> </ul>
	투자 수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영역은 기술개발(28.8%), 인력채용(18.2%), 기계설비구입(15.2%), M&amp;A(12.1%) 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응답한 기업 중 향후 3년 이내 M&amp;A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94%,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85%</li> </ul> </li> <li>■ 투자유치시 애로사항으로 재무위주 요소 평가, 투자신청 과정의 까다로움, 투자자금에 대한 정보 부재, 경영간섭 우려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</li> <li>■ 응답 기업의 79%가 투자상담 및 투자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,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와의 투자상담 의향이 있는 기업도 58%로 나타남</li> </ul>
운용사	성장사다리펀드 운용에 대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성장사다리펀드가 기존 정책기관 펀드와 차별화된 점으로 새로운 분야(제기지원, 코넥스, IP등)에 대한 투자, 민간매칭에 유리한 출자구조, 운용인력에 대한 경력 인정확대, 신생 운용사의 시장진입 기회제공 등을 높게 평가함</li> <li>■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·후순위 구조 및 보수구조 이원화(4.36/5점 만점),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(4.25), 시장의 의견 반영(4.13), VC·PE 출자관행 개선(4.09), 운용인력 경력확대(4.02), 운용인력 중심의 평가(4.00)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편 운용상 제약(3.69), 관리보수의 적정성(3.53), 성장사다리 출자비율(3.52) 등은 부족하다고 평가</li> </ul> </li> </ul>
	투자 수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그간 출시했던 하위펀드 중에서 K-Growth글로벌, 성장전략M&amp;A, 세컨더리, 스타트업, 제기지원 펀드에 대한 추가 출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</li> <li>■ 또한 신규 펀드와 관련하여 초기기업 Follow-on(초기기업 투자 이후 후속투자)펀드, 세컨더리(창업초기/엔젤투자 지분 인수)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</li> <li>■ 상당수 운용사가 향후 1년 이내 전문운용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(1~2명 채용 84%, 3~5명 채용12%)</li> <li>■ 성장사다리 초과수익 일부를 민간LP에게 제공하는 옵션이 민간자금 매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</li> </ul>